

묘비명 쓰며 생애 돌아본 선인들

내면기행

심경호 지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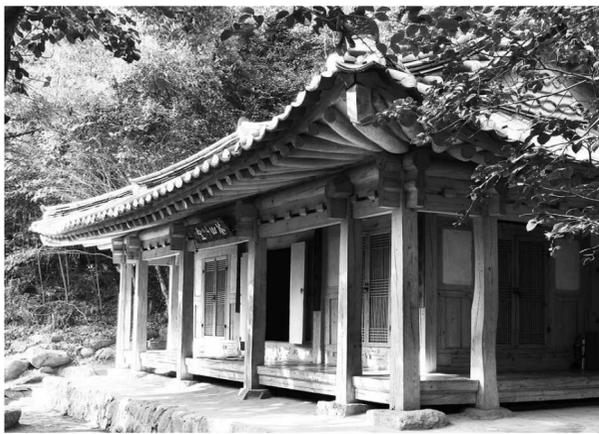
영국의 극작가이자 평론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그는 1925년 ‘인간과 초인’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였다. 그가 남긴 묘비명은 오늘날 사는 이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기자가 아는 어떤 이는 후일 묘비의 글을 “철없는 소년 철없이 살다 가다”로 쓰고 싶다 한다. 순간순간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게 목표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누구나 죽음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동양의 현자들은 죽음이 나를 무로 이끈다는 사실에 직면했기에, 이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다.

유한자인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다산 정약용은 자신이 묘지를 지어 추구하는 태도를 지향했다. 강진 다산초당. <광주일보 자료사진>

의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모르고 인생을 산다. 그러나 문득문득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 죽음은 자신의 내부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서도 의미있는 기제가 바로 묘비명을 쓰는 일이다. 고려대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가 펴낸 ‘내면기행’은 죽음에 대면해 자신의 삶을 써내려간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옛사람이 스스로 쓴 58편의 묘비명 읽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한다.

책은 근대 이전 한국의 지식인들이 남긴 자찬묘비와 자찬묘지를 토대로 한다. 조운홍, 박세당, 정약용, 강세황, 김택영 등 지식인들의 묘비는 시대를 조월해 오 늘에까지 울림을 준다.

다산은 정약용(1762~1836)은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왔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지만 정조 죽음 이후 기해전 전주교 박해와 보수적인 정치 지형으로 유배를 당했다. 그의 착한 일을 즐겨 했으며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 했다.

“하늘은 그로써 너를 곱게 다듬었으

니, 잘 가두어 속에 갇추어 두면 장차 아득하게 멀리까지 들려 울리리.”

다산은 자신이 묘지를 지어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향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에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기세에 “하늘이 그로써 너를 곱게 다듬었다”고 해석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학자였던 조운홍(1332~1404)은 세상이 비루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씨 왕조는 그에게 강릉대도호부사의 직을 주었지만 그는 병을 이유로 사직했다. 저자는 그가 “죽음을 회귀하고 생각하여, 해와 달을 옥구슬로 삼고 청공명월을 술잔으로 삼았다”고 했다고 설명한다.

조선 말기 학자 김택영은 고문의 전통을 체계화 했던 학자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통한의 슬픔을 삭여야 했다.

“행실은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고/ 문장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다/ 일생의 힘을 다해 문장을 했다만/ 그 종말은 여기에서 그쳤도다/ 아아, 슬프다”

저자는 “한국의 근대 이전 지식인들도 영원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번민했으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빛을 찾아내어 죽음으로부터 살아 돌아왔다”며 “선인들이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쓴 묘비와 묘지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민음사·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는 계속 걸기로 했다=이 책은 2년에 걸쳐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 네팔 구간(1700km)을 한국인 최초로 완주한 거칠부 작가의 트레킹 에세이다. 네팔 히말라야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그녀가 묵묵히 내디딘 한걸음 한걸음의 이야기 속에는 네팔의 문화와 역사,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작가의 진솔한 삶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뿌공리·1만8000원>

▲그리고 신은 내게 도와달라고 말했다=심리 치료사 야콥 야코비치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내 아벨 바우만과 인연을 맺으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을 담은 연작 장편이다. 국내에 먼저 소개된 전작 ‘그리고 신은 얘기가 좀 하자고 말했다’, ‘악마도 때론 인간일 뿐이다’에 이은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4년 전 세상을 떠났던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아랍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열린책들·1만3800원>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가=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일자리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각 개인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책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변화 속에서 각 개인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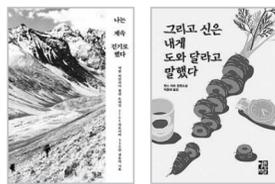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책

▲밤, 예쁘게 먹겠습니다!=즐겁고 행복하게 식사하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꼭 필요한 매너를 알려주는 어린이 식사 예절 그림책이다. 귀여운 쌍둥이 영두와 자두가 판타지 기차를 타고 예절 여행을 떠난다.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하고 동전을 획득하면서 즐겁게 예절을 배운다. 여행을 통해 예절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임을 알려준다.

<나는별·1만3000원>

▲지우개 톱 쫄음이=지우개를 지우면 나오는 지우개 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기발한 의인 동화로,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공간인 교실에서 펼쳐지는 모험담이 흥미진진하다. 지우개 톱 친구들 중에서도 쫄물이는 남달리 정의롭다. 하지만, 쫄물이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미약한 지우개 톱일 뿐이다. 한 명의 특별한 영웅이 아닌 결점을 지닌 친구들이 우정으로 힘을 모아 서로의 약점을 채워 가는 과정을 담았다.

<창비·1만원>
▲여기가 상해 임시 정부입니다=이 책



서 평생직업 내지는 평생직장이 사라진 오늘날, 구직자나 재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을유문화사·1만6000원>

▲독서의 힘=이 책은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 ‘독서의 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작팀이 현장 취재를 위해 중국 대륙의 절반을 부지런히 돌아다닌 덕에 풍부한 역사 자료와 권위 있는 학술 관점, 문명, 정신세계, 인생, 그리고 강대국과 관련된 ‘독서의 힘’을 깊고도 완벽하게 연출했다. 책에는 각 장마다 컬러판 자료사진과 현존하는 중국 최고 지식인들의 인터뷰와 ‘명사와의 대담’, ‘책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더블북·1만8000원>



은 어린이의 시선에 맞추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독립 운동가’와 ‘가짜’

의 애환을 담아낸 창작 동화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낯선 땅에서 독립운동하며 목숨을 걸고 맞섰던 임시 정부 요인들, 고단하고 찬란했던 그들의 삶을 어린이의 눈으로 풀어내 더욱 가깝고 애뜻하게 느낄 수 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과 장소를 보여주며 우리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우술·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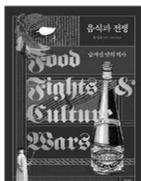
파리가 페스트 이겨낸 비결은 레모네이드?

음식과 전쟁-숨겨진 맛의 역사

툼 날론 지음·신유진 옮김

1665년과 1666년 사이 영국 런던을 휩쓴 페스트는 시민 1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런던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1630년에는 밀라노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6만명이 세상에 사라졌다.

1968년 페스트가 파리에 상륙하자 프랑스인들은 경악했다. 유럽 각국을 초토화시킨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도 공격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파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반면 아마겟 등 다른 프랑스의 도시들은 페스트의 마수에 무릎을 꿇었다. 유럽에서 거



주 인구와 방문객이 가장 많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전염병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었을까?

책 ‘음식과 전쟁-숨겨진 맛의 역사’는 그 답을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레모네이드에서 찾는다. 레몬에 함유된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자연 살충제이자 구충제의 역할을 했다.

또 프랑스인들이 요리하면서 쓴 레몬 껍질과 짓기인 레몬을 버리는 곳이 ‘버룩-시궁쥐-사람-시궁쥐’라는 감염의 순환 사슬을 깨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 스프레기장이었다는 사실 덕에 파리는 우연일

지라도 레몬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를 받았다. 설명이다.

고대 요리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레시피를 재현해 보곤 하는 고문서 수집가이자, 현재 문학이나 음식에 관한 회귀도서를 판매하는 ‘파초 서점’을 운영중인 프리랜서 작가 톼 날론이 쓴 이 책은 인류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과 관련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모았다.

저자는 대영도서관을 비롯해 유럽의 도서관과 미술관, 현재방에서 찾아낸 희귀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음식을 둘러싼 이야기들이인류사 속 혁명, 전쟁, 탐욕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

음을 보여준다.

책에서는 중세 유럽에서 일었던 잉어 열풍을 십자군 전쟁과 접목해 풀어내며 육군과 해군의 보급품 무게를 달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휴대용 수프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개인 접시와 포크를 사용하게 된 16세기 초반을 거쳐 루이 14세 시절 완성된 봉건시대 화려한 저녁 식사를 통해 만찬과 혁명의 관계를 조망한다.

그밖에 카카오를 둘러싼 유럽 열강들의 분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바비큐 문화의 분류, 걸쭉한 음식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다룬 부분도 흥미롭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120장에 달하는 희귀 일러스트다. 고문서에 수록된 삽화에서부터 중세 화가의 판화나 소묘, 오래된 요리책에 담긴 이미지 등 그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아출판사·2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ÉLÉSIS Paris

텔레스이는 자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스이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